

인도 음악·무술·춤을 만나자

12월 3일 광주 아시아문화교류재단서 공연



11월 19일 광주 아시아문화교류재단 크리슈나홀에서 밀린드 데테의 '반수리' 연주회 '사운드 마사지'를 경험하는 지리가 열렸다.

무용수의 화려한 손짓 속에 연꽃이 피어난다. 사랑과 슬픔 분노와 고요는 하얗게 분장한 얼굴 위 표정으로 드러나고, 그에 알맞은 발동작까지 곁들여지면 춤은 음과 양의 조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인도의 음악, 무술, 춤이 한국과 조우한다.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직접 배울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12월 3일 광주 아시아문화교류재단 크리슈나홀에서는 인도 무용 '카타칼리' '모히니아탐'과 무술 '칼라리파야'를 만날 수 있다. 손짓 언어 무드라를 통해 사랑 연꽃 등

을 표현하고 온 몸으로 울리는 명상언어를 통해 무언의 의사소통을 경험한다. 남인도 케랄라 지역의 전통춤인 '카타칼리'와 '모히니아탐'은 거칠고 격정적인 남성성과 부드럽고 우아한 여성성을 대변하는 춤이다. 음과 양의 조화,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이라는 의미심장한 가치를 함축하는 춤이기도 하다.

참가자들 직접 경험 사운드 마사지 호응

현란한 색채의 분장과 육중한 의상, 눈동자를 움직이며 표현해내는 감정 등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워크숍에서 제공한다. '디따디따' 등 기본 발동작 두 가지와 사랑 연꽃 하늘 등 손짓 동작을 변형미 감사의 지도로 배울 수 있다.

요가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인도 전통 무술 '칼라리파야'에 집중해 보자. 남인도 지역에 전해지는 전통무술이자 무술의 어머니라 칭해지는 '칼라리파야'는 몸에 대한 준비작업인 연속 동작 훈련,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막대 훈련, 창이나 방패, 칼 등의 무기를 사용하는 무기 훈련, 최정적

으로 맨몸으로 적수를 상대하는 맨손 훈련 등 네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칼라리파야' 계승자 자야프라사드는 이번 워크숍에서 몸의 유연성과 근력, 속도 등 몸에 흐르는 내부 에너지를 조절하는 연속 동작 훈련을 수련시킨다.

이에 앞서 11월 19일에는 인도의 대나무 플루트 '반수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명상을 하고 소리의 마사지를 받는 사운드 마사지 워크숍이 열려 호응을 얻었다. 사운드 마사지는 소리가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는 것을 말한다.

인디아TV의 다큐멘터리 '달라이 라마'의 음악을 맡았던 반수리 연주자 밀린드 데테가 내한해 사운드 마사지의 정수를 선보였다. 연주자들은 깊은 명상 상태에서 악기를 통해 참가자들의 명상을 유도하고 수행자들도 함께 명상에 든다. 소리가 지닌 파장을 몸과 마음 전체로 받아들임으로써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체내의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온 몸 흔들기를 통해 쿨달리나(속체 속에 자리잡고 있는 영적 진화의 체계를 깨우고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잠긴다. 그 후 누워서 온 몸을 최대한 이완한 채 연주자가 들려주는 음악으로 사운드 마사지를 받는다. 마무리는 명상이다. 사운드 마사지를 받는 날은 채식과 함께 사우나를 권장한다. 밥을 배출한 뒤 맑은 물을 섭취하면서 온 몸을 정화하는 단계를 밟는 것이다. (062) 224-0045

강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명창' 이 동화를 노래하니 새롭네

안숙선, 판소리 '기억속의 동화' 음반 '눈길'



"기억 속에 어떤 동화가 남아 있습니까?"

안숙선 명창이 '눈사람' '금강산 타령' '옹헤야' 등 민요와 '춘향가의 이별 대목' 등 판소리를 담은 '기억속의 동화' 음반을 펴냈다.

이번 음반은 '미음(美音)' '참가' 'West End' '가야금 병창' 라이브 콘서트 이후 5년 만에 제작됐다.

어릴 적 기억에 남아 있는 동화를 감상 하듯 감미로운 '기억속의 동화'에서 안

숙선 명창은 서민적인 정취와 세련미로 서양의 재즈, 브루스처럼 자유자재로 고음과 저음을 주고받는 독특한 보이스 칼라를 드러낸다.

이와 함께 가야금 연주자 안옥선씨가 가야금 산조와 살풀이를 연주한 첫 음반 '바람의 길'도 동시 출반됐다.

살풀이는 안숙선 명창의 구름과 안옥선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 이태백의 아쟁, 원장현의 대금 반주가 잘 어울려 환상적인 음을 들려준다.

강지연 기자



신나게 질러 봅시다~

무대를 메운 어둠 속에서 속삭이듯 조용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조명이 밝아지는 순간 때로는 뮤지컬처럼, 때로는 오페라처럼 관객을 리드했던 그의 공연이 시작된다.

12월 8~10일 저녁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이 뜨겁게 달궈진다. 국민가수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서울 공연이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 공연은 다른 지역 공연과 달리 무조건 달리는 내용"이라고 밝혔던 조용필의 말처럼 1970~90년대 히트곡들만 가득 채워 팬들에게 전달하는 선물세트다. 무대 위의 조용필은 '허공' '킬리만자로의 표범' '친구여'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등 히트곡들로 무대 아래 팬들과 하나가 된다. 관객을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 객석을 가로지르는 T자형 특설 무대도 설치한다.

조용필은 올해 투어콘서트의 수익금 일부를 국제백신연구소(IVI)에 기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국제백신연구소는 한국에 본부를 둔 유일한 국제기구로 각종 전염병 등으로 고생하는 전 세계 빈민과 아동을 위한 백신을 개발하는 단체다.

관중층 총무원장 홍파 스님과 인연이 깊은 불자 조용



투어콘서트 수익금 일부 백신연구소에 전달 계획

필은 2003년 부인 안진현씨와 사별한 후 서울 내원사에서 49재를 지내는 등 조용한 신행을 이어가고 있다.

조용필은 1969년 그룹 '에트킨즈'를 결성해 가요계에 뛰어든 이후 38년째 현역 가수로 활동 중이다. 한국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카네기홀에서 공연했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보관문화훈장을 서훈받기도 했다.

서울 공연에 이어 23~25일 부산KBS홀,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공연도 계획돼 있다. 내년에는 소규모 투어와 함께 새 음반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조용필이 이끄는 열정의 무대에서 함께 노래하며 온 몸을 가득 채우는 젊음의 흥분을 담은 심장소리를 느껴 보는 건 어떨까? (02)564-1307

강지연 기자

불교방송 '문세윤의 뮤직펀치' 재치있는 입담으로 '인기 짝'

불교방송의 낮시간을 웃음으로 책임지고 있는 '문세윤의 뮤직펀치' (매일 낮 12:00)가 부담없는 진행자의 넘실과 숨은 노래실력 등으로 청취자들의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다.

개그를 통해 다져진 재치있는 입담, 힘 있는 문세윤의 목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편하고 재미있다는 평가를 얻으며 고정팬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개그맨 장재영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화요일 하 하 하', 데이치 송은과 문세윤이 환상의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목요일 '뮤직드라마' 코너는 인터넷 다시듣기까지 행기는 만만아들이 두 돌돌하고 있다.

SBS 웃찾사에서 뱃살로 피아노를 치는 '버디밴드'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문세윤은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로 제56회 한민족영화대상 신인남우상에 오르며 연기력도 인정받는 등 최근 주목받는 개그맨이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개그연기 노래의 팔방미인 문세윤의 화려한 입담으로 점심 시간 후 나른함을 날려보는 것은 어떨까.

강지연 기자

불자 가수 장윤정 디너콘서트



트로트 천사 장윤정이 12월 22~23일 디너콘서트를 개최한다. 서울 강남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리는 디너콘서트 '트로트 천사 장윤정-Lovely 윤정'에서 장윤정은 '어머나' '잔짜라' '이따이따요' 등 3장의 음반 속 히트곡들을 열창한다.

지난해 디너콘서트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장윤정에게 이번 디너콘서트는 노래와 더불어 색다른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있다.

상을 발발 트로트 천사 장윤정의 매력 속으로 빠져 보자. 1544-2498

강지연 기자

성지순례 기도도량
포항. 흥해. 칠포. 대원사

용의 크기: 넓이 20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대한불교 선총림 오봉산 대원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광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갈라강관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이트형강판, 슬라브, 사철(대응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갈라지붕공사